

# 인터뷰를 활용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연구



김 용 현 (신라대학교)  
(korean-edulab@hanmail.net)

## 국문요약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을 두어 외국인 학습자들의 학문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돕고 있다. 그러나 문법 수업, 학문적 글쓰기 수업, 발표나 토론 등의 제한적인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수업이 주로 개설되어 있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은 단지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에만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종합적인 사고력에도 중점을 두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고른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사고력 및 과제 수행 능력을 기를 수 있고 한국어의 구어와 문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 및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으며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훌륭한 수업 도구인 인터뷰를 활용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실제 교육에 적용하기에 앞서 우선 인터뷰의 개념과 한국어교육에서의 인터뷰 활용의 의의를 살펴보았으며 인터뷰 단계 모형과 수업 내용을 설계한 다음 학문 목적 한국어 교수요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제 수업에 활용하였는데 그 결과 학습자들은 의사소통 능력, 사고력 및 과제 수행 능력 등의 대학 수학 기초 능력의 향상을 가져왔으며 한국인 사고방식의 이해, 구어와 문어의 차이 이해, 문법 및 어휘의 학습 등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주제어 : 한국어교육, 학문목적한국어, 인터뷰, 학문목적한국어 교수요목

# I. 서론

현대 사회는 인간들에게 ‘의사소통 능력’ 혹은 ‘소통의 능력’을 요구한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현대인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능력이 된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의사소통’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함’이라고 풀이했다. 이전의 ‘의사소통’은 상대방과 단순히 말이 오고 가는 대화를 의미했으나 사회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직장 내에서의 의사소통, 문화 간 의사소통,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고객과의 의사소통 등 그 쓰임새가 다양해졌다. 이처럼 ‘의사소통’은 일상생활에서 나누는 대화를 의미하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에서 ‘말과 글로써 의견과 감정을 교환하는 행위’나 ‘쌍방향적 의사소통’ 등으로 그 개념과 영역이 점차 확장되어가고 있다. 예컨대,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등의 모든 언어 기능을 비롯해 몸짓, 표정, 춤, 억양 등의 비언어적인 매체, 홈페이지, SNS, 블로그, 메신저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쌍방향적으로 상호간의 생각을 교류하는 행위로까지 그 의미는 재생산되었다.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은 현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으로 주목을 받은 지 이미 오래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활용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내의 교육에서도 의사소통 능력을 교육과정 설계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국어 교육에서는 1997년 7차 교육과정 이후 국어 교육과정 개편 방향이 의사소통 교육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최성민 2010, 414).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 대학의 ‘교양국어’는 과목 이름부터 ‘사고와 표현’, ‘읽기’, ‘쓰기’, ‘국어작문’ 등으로 변경되기 시작하였고, 말하기 토론, 글쓰기 등을 포괄하는 ‘의사소통’ 교육 중심으로 변화하였다(박현희 2009, 167)(최성민 2010, 413 재인용). 또한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교원자격검정령에는 교원양성기관의 국어과 교육과정에 ‘의사소통교육론’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신설되었다(박재승 2009, 121). 이렇듯 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 교육이 주목을 받는 배경에는 의사소통을 인간의 핵심적인 능력으로 평가하고 있는 일련의 사회적인 흐름과 더불어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어 교육의 주요 이론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은 Dell Hymes(1967, 1972)가 만든 용어로 그는 인간이 특정 상황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석하며 인간 상호간에 의미를 타협하게 해 주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그 이후 Canale & Swain(1980)은 문법적 능력, 담화적 능력, 사회 언어적 능력, 전략적 능력 등의 4가지 요소로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범주를 구성하였고 Bachman(1990)의 언어 능력(language competence)까지 이어져 왔다.<sup>1)</sup>

---

1) H. Douglas Brown, 이홍수 외 역(2005, 288-290)

이렇게 외국어 교육에서는 1970년대부터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이는 곧 국어 교육에 영향을 끼쳤으며 한국어 교육에서도 수많은 연구의 기반이 되었다. 현재에도 한국어 교육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혹은 의사소통 교수법에 기반을 두고 교수, 교재개발, 교수요목 및 교육 과정의 설계 등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교육기관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기능별로 과목을 배치하여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거쳐 대학에 입학한 학문 목적 학습자들은 기초적인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즉,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가능할지는 몰라도 대학을 수학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학습자는 드물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각 대학에서는 교양 교과목으로 한국어 수업을 두어 학습자들의 학문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처럼 대학에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학습자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과목을 살펴보면 중급 혹은 고급의 문법 수업, 보고서 쓰거나 논문 쓰기와 같은 학문적 글쓰기 수업, 발표나 토론 등의 제한적인 말하기 수업, 텍스트 읽기 수업과 같은 강독 수업 등이 주로 개설되어 있다. 또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연구문헌을 분석한 결과, 주로 학문적 글쓰기에 관련된 쓰기 연구,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교수요목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말하기, 교재, 읽기 영역 순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박석준·김용현 2013, 81).

학문목적 한국어교육(Korean for Academic Purposes, KAP)이란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대학을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대학 수학 기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강의 수강에 도움을 주는 교수-학습 활동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는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집중된 반면에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총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가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과 사고력 증진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현재 대학에서의 의사소통의 기본이 되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교육은 각 전공분야들을 가로지르는 기초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각 전공분야들 간의 패러다임의 상호 교환은 의사소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과(서정혁, 2005:364) 교양국어교육의 근본 목적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해 학문연구에 기초가 되는 비판적 사고력, 논리적 분석력, 발표력 배양에 있는 것을(김복순 2009, 14)(오세정 2012, 355 재인용) 고려해보면 대학을 성공적으로 수학하는 데에는 의사소통 능력이 필수적임을 알 수가 있다. 이처럼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은 학문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영역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인터뷰’ 활동을 통해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종합적 사고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한국어 교육에서 인터뷰 활용 교육의 의의

인터뷰(interview)라는 말은 본래 불어 고어인 앙트르뷰(entrevue)에서 유래된 말로 ‘서로’라는 뜻의 ‘enter’와 ‘보다’라는 ‘voir’가 합쳐져 ‘서로 마주보다(s'entrevoir)’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인터뷰는 회견자(interviewer)와 응답자(respondent) 둘 사이(dyadic)의 커뮤니케이션이며, 질문하고 대답을 함으로써 미리 계획된 상황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말한다. 또한 Stewart & Cash(1978)는 인터뷰를 질문과 답을 포함한 행위의 상호 교환을 위해 사전에 결정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자간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고 정의했다(박성희 2003, 19). 일반적으로 질문자, 회견자는 ‘인터뷰어(interviewer)’, 답변자, 응답자는 ‘인터뷰이(interviewee)’라고 한다.

인터뷰는 목적에 따라 보도용 인터뷰, 조사용 인터뷰, 면접용 인터뷰, 성찰용 인터뷰로 구분할 수 있고 방법에 따라서는 대면 인터뷰, 전화 인터뷰, 서면 인터뷰(팩스, 전자우편), 인터넷 메신저 인터뷰 등이 있다. 또한 만남의 방식에 따라 단독 인터뷰, 공동 인터뷰 등이 있다(김경섭 외 2010, 59-71). 그러나 각기 인터뷰 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인터뷰의 주제, 목적, 인터뷰어와 인터뷰이의 상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택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면 인터뷰와 단독 인터뷰 방식이 가장 보편적이다.

사실 인터뷰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의내리기가 쉽지만은 않다. 기본적으로는 인터뷰는 기자들이 언론의 보도용으로 다루는 것을 의미하지만<sup>2)</sup> 입시나 취업을 위한 면접, 상담, 의사와 환자와의 대화, 회의나 워크숍, 지인들과의 대화 등등 편안한 대화에서부터 격식을 차려야 하는 대화까지 의사소통의 형식을 갖춘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분명 대화와 인터뷰는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대화와 인터뷰는 가까운 거리의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전형이면서 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서로 번갈아 참가하는 대화 형식을 띠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

2) 1905년 한 평론가는 ‘사실상 신문의 모든 글은 인터뷰를 토대로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이재경 2008, 176).

인터뷰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고, 주제는 사전에 계획되어 연관된 주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절되는 특징이 존재한다(박성희 2003, 18). 따라서 위와 같은 특징을 지니지 않은 대화는 전형적인 인터뷰라고 보기 힘든 것이다.

이렇듯 인터뷰는 질문과 답변이라는 대화 형식을 통해 특정한 주제 및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의사소통의 한 방식이고 그 방식은 본질적으로 쌍방향적이다. 또한 인터뷰에는 답변자인 인터뷰이의 생각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인 인터뷰어의 관점도 담겨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인터뷰는 묻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함께 서로의 생각과 내면을 들여다보는 장이 된다. 그리고 인터뷰어의 입장에서는 타인에 대한 존중, 삶에 대한 이해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김경섭 외 2010, 55-56). 이처럼 인터뷰는 교육적 가치가 큰 교수 학습 도구인데 이를 토대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의 인터뷰 활용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의 향상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대학에서 수강을 하는 학생들은 사실상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언어 기능을 통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네 가지 언어 기능 모두가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에 통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최은지·정명숙 2007, 304). 이에 민현식(2008, 30)은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대학 수학 능력 함양을 위해서는 말하기·듣기의 학문적 담화 능력, 읽기의 학문 독해 능력, 쓰기의 학문 작문 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는 총제적인 언어 교육이 강조되는데 인터뷰는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통합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인터뷰는 기본적으로 음성언어를 활용한 대화로 이루어진다. 질문자는 음성언어로 '말하기'를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응답자의 답변을 '듣기'의 과정을 통해 수용하게 된다. 둘 사이에 음성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음성은 다시 문자 언어로 '쓰기', 즉 기록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렇게 기록된 문자언어는 제3자의 '읽기'를 통해 보다 폭넓게 소통될 수 있게 된다(최성민, 2010:417). 즉, 학습자들은 인터뷰어와 인터뷰이 사이에 질문과 대답이 오고가면서 말하고 듣는 연습을 하게 되며, 인터뷰 후 학습자들이 녹음 내용을 다시 한번 듣고 내용을 정리하게 된다. 그 다음 전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문 형식의 인터뷰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를 하고 다른 학생들은 전사 자료와 발표 자료를 읽으면서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

인터뷰를 활용한 교육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등의 언어의 모든 영역을 통합적으로,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의 다수가 글쓰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교수 도구가 될 뿐 아니라 논문쓰기나 발표하기 그리고 취업(면접) 준비, 나아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고력 및 과제 수행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대학을 수학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은 사고력이다. 이준호(2009, 179-186)는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위해 반드시 사고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고력이 언어적으로 전이된 것이 사고 기술이라고 하면서 ‘이해하기, 분석하기, 분류하기, 순서화하기, 비교하기, 통합하기, 추론하기, 논증하기, 정체성 파악하기, 평가하기’ 등의 항목을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사고 기술 목록으로 제시하였다. 인터뷰를 활용한 교육은 단순히 인터뷰를 통해 인터뷰이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활동에는 인터뷰 대상자 분석, 인터뷰 질문지 배열, 인터뷰 내용의 이해, 보고서 쓰기, PT 제작, 발표, 피드백 등의 사고 기술에 해당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고 각각의 단계마다 학습자들이 반드시 수행하게끔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대학 수학에 필요한 사고 기술들을 적절히 실행함으로써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과제 작성을 단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장점 또한 존재한다(오세정 2012, 369).

셋째, 한국어의 구어와 문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많은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구어에 익숙해져 있어 문어로 작성해야 할 과제가 많은 대학교에서 학습자들이 적응하기가 만만치 않다. 앞서도 밝힌 바 있듯, 인터뷰는 인터뷰이의 답변을 듣고 받아써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는 인터뷰 현장에서나 녹음된 파일에 있는 말을 문자 형태로 기록을 하고 보고서 형식으로 다시 재구성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살아있는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구어적 표현과 문어적 표현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체감하며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구술적 상황에서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비문법적인 문장 표현이라든지 비속어나 비표준어 표현의 문제를 자각할 수 있게 된다(최성민 2010, 421-433).

넷째, 한국인을 포함한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다. 인터뷰는 묻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함께 서로의 생각과 내면을 들여다보는 장이 된다.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물음을 통해 경청하고, 공감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되물어보면서 서로의 생각과 견주어보게 된다(김경섭 외 2010, 56). 또한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정보는 인터뷰이의 가치관이 잘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인터뷰이의 메시지에 대한 인터뷰어의 평가나 가치 판단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인터뷰어의 반성적 사유를 이끌어내기가 용이하다(오세정 2012, 369). 이처럼 목표어를 활용한 의사소통 기회가 많지 않은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뷰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인터뷰 주제를 학습자와 연관된 내용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학습자가 주도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인터뷰라는 방식이 학습자들에게는 다소 낯선 교육 방법일지도 모르나 인터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각 단계마다 교사가 방향을 잡아 이끌어 준다면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외에 인터뷰를 하거나 정리하기, 발표하기 등등의 다양한 인터뷰 활동을 학습자가 혼자, 혹은 모듈별로 실제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에 학습자들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실행함과 동시에 인터뷰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하게 된다. 즉, 학습자는 주도적으로 자료 조사, 인터뷰 정리, 인터뷰 발표 등의 역할을 하고 교사는 학습자에게 기초적인 지식의 전달, 단계별 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피드백을 주는 학습자의 보조 역할을 한다.

### Ⅲ.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인터뷰 단계

인터뷰는 간단히 말해서 인터뷰어와 인터뷰이가 만나 특정 주제에 대해서 서로 간의 생각을 교환하는 의사소통의 한 방식이다. 그러나 인터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인터뷰 후에는 얻은 정보를 토대로 기사나 보고서로 작성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렇듯 인터뷰를 진행하는 데에는 체계적인 단계와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처럼 거시적 차원에서의 인터뷰 과정은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계획 실행 평가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에 Ken Metzler(1977)와 Stewart & Cash(1978)는 기자들의 인터뷰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박성희 2003, 98).

〈표 1〉 기자들의 인터뷰 단계

Ken Metzler(1977)	Stewart & Cash(1978)
① 인터뷰 목적을 정한다.	① 인터뷰 목적을 정한다.
② 주변 취재를 한다.	② 목적에 맞는 인터뷰 대상을 선정한다.
③ 인터뷰 대상을 섭외한다.	③ 인터뷰 토픽이나 인물에 대해 철저한 사전 조사를 한다.
④ 구체적인 질문을 준비한다.	④ 인터뷰 진행의 윤곽을 잡는다.
⑤ 인터뷰 대상을 만나 어색함을 없앤다.	⑤ 질문을 준비한다.
⑥ 준비해간 질문을 한다.	⑥ 인터뷰어가 스스로를 파악한다.
⑦ 좀 더 단단한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⑦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한다.
⑧ 본격적으로 묻기 어려운 질문을 비로소 던진다.	

Ken Metzler(1977)	Stewart & Cash(1978)
⑨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정상화한다. ⑩ 충분한 답변을 들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인터뷰를 마무리한다.	⑧ 인터뷰가 끝난 후 답변을 분석한다. ⑨ 기사를 작성한다.

출처: 박성희(2003)

위의 표에서 제시된 단계들은 ‘준비-실행-마무리’라는 일반적인 인터뷰의 틀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일치할 하나 약간의 차이점 또한 존재한다. 먼저 Ken Metzler(1977)는 인터뷰 진행 단계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다루었는데 특히 실제 인터뷰를 진행함에 있어 인터뷰이 가 유의해야 하는 심리적인 부분까지 치밀하게 구성했다. 그러나 인터뷰 내용을 조직하고 기사로 재생산하는 마지막 단계는 생략했다. 반면 Stewart & Cash(1978)는 인터뷰 준비 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인터뷰 후에 답변을 분석하거나 기사를 작성하는 부분까지 인터뷰 단계에 포함시키는 등 비교적 상세한 단계를 설계하였으나 정작 인터뷰 진행 단계에 대한 내용이 부실하다. 결국 이들이 제시한 인터뷰 단계들은 특정한 한 단계의 내용만을 다루는 데에 치우쳐져 있어 인터뷰의 진행 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표 2〉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인터뷰 단계 모형

단계		수업 내용	수업 세부 내용
1단계	인터뷰 준비하기	인터뷰 준비	인터뷰 목적 및 주제 선정
			인터뷰 대상자 섭외
2단계	인터뷰 설계하기	인터뷰 질문지 작성	인터뷰 대상자 사전 정보 수집
			질문지 작성 및 배열
3단계	인터뷰 하기	인터뷰 진행	실제 인터뷰 진행
			녹음 및 녹화, 필기 등 기록
			사진 및 동영상 촬영
4단계	인터뷰 정리하기	인터뷰 전사	인터뷰 내용 전사 및 분석
			인터뷰 기사문 작성
			인터뷰 PT 정리
5단계	인터뷰 발표하기	기사문 발표 및 제출	PT를 활용한 인터뷰 발표
			최종 인터뷰 기사문 제출

못한 한계가 있다.

그 밖에 국내의 국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김정섭 외(2010, 71-83)에서는 ‘인터뷰 주제의 선정 - 인터뷰 대상의 선정 - 인터뷰 질문지 준비 - 인터뷰 진행 - 인터뷰의 기록과 정리’로 설정하였다. 또한 오세정(2012, 360-365)은 ‘인터뷰 준비 - 인터뷰하기 - 글쓰기 및 발표 3단계로 간단하게 구성하였다.

본고에서는 <표 2>와 같이 제시된 기자들의 인터뷰 단계와 교육용 인터뷰 단계를 재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인터뷰 단계 모형을 설계하였다. 본고의 대상이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임을 감안해서 그들이 인터뷰의 단계와 단계별 내용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5단계로 설정하였다. 덧붙여 단계마다 수업 내용을 밝히면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고의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인터뷰 단계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기가 용이하게끔 ‘인터뷰 준비하기 - 인터뷰 설계하기 - 인터뷰하기 - 인터뷰 정리하기 - 인터뷰 발표하기’ 5단계로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설정하였다.

먼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의 목적 및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관련된 인터뷰 대상자를 섭외를 해야 한다. 목적과 주제는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야나 알고 싶은 분야, 혹은 다른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거나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분야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에 적합한 인터뷰 대상자를 직·간접적으로 섭외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쉽게 만날 수 있거나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가 있는 대상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섭외하는 것이 다채롭고 깊은 정보를 이끌어 내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 인터뷰 설계 단계에서는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질문을 설계할 시 아직 인터뷰 대상자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인이나 대상자 주변의 인물, 기타 자료 등을 통해서 간략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중매체의 토크쇼(Talk Show) 프로그램에서는 출연이 예정된 인물과 사전 인터뷰하거나 자료 조사를 한다. 이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데다가 이 정보를 활용하여 인터뷰 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질문이나 시청자가 원하는 질문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터뷰 질문을 작성하기 전에는 대상자의 자료 수집을 통해서 알리고 싶은 정보, 청자가 듣고 싶은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충분한 사전 조사를 거친 후, 질문들을 어떻게 배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 인터뷰를 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큰 주제와 작은 주제를 설정하고 중요도를 선정하는 일이다. 이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주제별 배열, 시간별 배열, 공간별 배열, 원인과 결과의 배열, 문제해결의 배열 등을 들 수 있다(박성희 2003, 98).

질문의 선정과 배열이 완성되면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한다. 가능한 한 조용한 실내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에 앞서 날씨, 옷차림, 취미 등에 관한 가벼운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작해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할 경우 추가 질문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변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인터뷰를 마무리할 때에도 인터뷰 소감이나 계획 등의 가벼운 질문을 통해 인터뷰를 부드럽게 정리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한다.

특히 인터뷰를 하면서 동시에 직접 기록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녹음 혹은 녹화를 꼭 해야 한다. 그리고 인터뷰 후 녹음 내용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인터뷰 대상자의 생각이나 의도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한국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전사를 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적인 효과와 부정확한 내용과 오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다. 이러한 전사 작업을 거친 후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뷰 기사문의 형태로 정리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 발표를 위한 PT를 완성해야 한다. 인터뷰 정리 단계에서는 단순히 녹음 내용을 듣고 쓰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획득한 정보의 전달을 준비하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자가 원고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은 그 동안의 진행 상황, 인터뷰 대상자 정보, 인터뷰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발표하고 기사문의 형식에 맞추어 인터뷰 기사문을 제출한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된다.

## IV. 인터뷰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의 실제

본 장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에 적합한 교수요목과 수업의 실재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수업은 2012년 2학기, P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입학 후 한국어 교육 과정 ‘한국어 화법 이론과 실제’ 시간에 진행되었고 이 강의는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을 통과한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본 수업에서는 인터뷰라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하여 한국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기회를 넓히고 대학을 수학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의사소통 능력과 대학 수학 기초 능력의 향상을 수업의 목표로 삼았다.<sup>3)</sup>

---

3) 본 수업은 2010년 2학기에 처음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 필자가 느낀 부족한 점과 학습자들에게 받은 설문지를 참고하여 수업 내용, 활동, 과제의 유형 및 횟수 등을 보완해서 2012년에 다시 진행하였다.

〈표 3〉 인터뷰를 활용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수요목

주	단계	수업 내용	역할 및 과제		
			교사	학습자	
1	인터뷰 전	• 수업 소개			
2		• 인터뷰란?		• 모듈 구성	
3		• 질문지 작성법 • 인터뷰 기사문의 예		① 대상자 선정	
4		• 인터뷰 수업 퀴즈 • 인터뷰 방송 시청	• 인터뷰 방송	② 대상자 정보 수집 ③ 질문지 작성	
5		• 추석 연휴			
6	인터뷰 1차 인터뷰	• 1차 인터뷰 대상자 정보 및 질문지 발표 • 인터뷰 기사문 읽기 1	• 피드백	• 피드백 • 질문지 수정	
7		• 인터뷰 기사문 읽기 2		④ 인터뷰하기 ⑤ 인터뷰 정리하기	
8		• 1차 인터뷰 발표 ①	• 피드백	• 피드백 • 기사문 수정	
9		• 1차 인터뷰 발표 ②	• 피드백	• 피드백 • 기사문 수정 ⑥ 대상자 선정	
10		• 1차 인터뷰 종합 평가 • 보충 강의 및 토론		• 기사문 제출 ⑦ 대상자 정보 수집 ⑧ 질문지 작성	
11		2차	• 2차 인터뷰 대상자 정보 및 질문지 발표 • 인터뷰 기사문 읽기 3	• 피드백	• 피드백 • 질문지 수정
12			• 인터뷰 기사문 읽기 4		⑨ 인터뷰하기 ⑩ 인터뷰 정리하기
13		인터뷰	• 2차 인터뷰 발표 ①	• 피드백	• 피드백 • 기사문 수정
14			• 2차 인터뷰 발표 ②	• 피드백	• 피드백 • 기사문 수정
15		인터뷰 후	• 최종 인터뷰 보고서 제출 • 인터뷰 발표 종합 평가 • 수업 평가 설문지 작성		

〈표 3〉에서 보시다시피 총 15주 과정(3학점)으로 본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뷰 전 - 인터뷰(1차/2차) - 인터뷰 후’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조원과의 협동을 통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설계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본 수업은 학습자의 역할에 교육적 효과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들을 수업 계획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수업의 단계에 따른 교수 학습 내용과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수업의 실체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 1. 인터뷰 전

1주차부터 5주차까지의 ‘인터뷰 전’ 단계에서는 인터뷰를 방송이나 신문, 면접 등 일상생활에서 접해봤지만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학습자를 위해서 인터뷰에 관한 배경지식을 쌓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수업의 목표인 의사소통(communication)과 인터뷰(interview)의 개념 및 어원, ‘인터뷰어(interviewer)’와 ‘인터뷰이(interviewee)’의 역할 및 관계, 인터뷰의 유형 및 단계, 인터뷰 질문의 유형 등 인터뷰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학습자에게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터뷰 진행 시 유의사항, 인터뷰 대상자와 약속을 잡는 방법(장소와 시간) 등 인터뷰 예절에 대해서도 교수를 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대화의 형식과는 달리 “-은/는 어땠습니까?, -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와 같은 개방형 질문, “당신은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 어떤 색을 좋아합니까?”와 같은 폐쇄형 질문이 자주 활용됨을 교수하였다. 이 밖에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등 인터뷰에서 자주 사용되는 공식적인 표현들도 교수하여 학습자의 원활한 인터뷰 진행을 돕고자 하였다.

특히 인터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뷰 질문지의 작성과 배열에 관해 학습자에게 강조하였다. 예컨대 인터뷰 처음 부분에는 성격, 취미, 날씨, 최근의 사건 등 가벼운 이야기를 하면서 긴장을 풀거나 친근한 분위기로 이끄는 질문을 해야 함을 주지시켰다. 그리고 인터뷰를 마무리하고자 할 때에는 갑자기 인터뷰를 끝내지 말고 내용을 정리하거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덧붙여 본문에서 주제에 관한 인터뷰 질문을 구성할 때에는 주제와 관련이 있는 질문으로 일관되게 구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간과 논리의 순서에 따라 편안하고 가벼운 질문에서 무겁고 까다로운 질문으로 배열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또한 준비를 하지 못한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뷰이의 답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내용과 관련된 추가적인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이 밖에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재미있는 질문, 지양해야 할 질문 등도 교수하였고 간단한 인터뷰 연습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렇듯 기본적인 인터뷰 내용을 학습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실제 인터뷰 기사문 읽기를 통해 인터뷰 질문의 유형 및 순서 등 기본적인 기사문 장르의 구조 파악과 인터뷰의 주제와 내용, 자주 사용되는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는 읽기 자료가 쓰기의 풍부한 상상력의 기초가 되고,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능동적 읽기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구조나 표현에 더욱 익숙해지게 되고, 스키마를 이끌어 내게 되어, 쓰기 활동을 고무시킬 수 있다고 이를 통해 읽기 자료 제시 없이, 곧장 쓰기를 요구했을 때 학생들이 지게 되는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데에(이성희 2008, 124)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 다음 인터뷰의 기초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평가하는 시간을 가진 후, 실제 인터뷰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토론하였다.<sup>4)</sup> 특히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뷰 경험이 없는 학습자들은 진행자의 진행 태도, 진행자의 비언어적 행동, 개별적인 질문의 내용들과 배열 등, 실제와 흡사한 인터뷰 환경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학습자들은 과외 시간을 이용하여 주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였다. 먼저 학습자들은 모둠(3-4명)을 구성한 후에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대상자 정보, 인터뷰 질문지 작성을 준비하였고 이를 6주차에 발표를 하도록 하였다. 질문은 총 25문항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예비 질문도 5문항을 더 준비하도록 하였다. 본 인터뷰는 공동 인터뷰, 대면 인터뷰, 정보 수집을 위한 인터뷰 형식을 빌려 진행하였고 인터뷰 기사문은 ‘제목 - 서론(인터뷰의 목적과 대상 정보) - 본론(인터뷰 질의응답) - 결론(인터뷰 정리 및 소감)’의 일반적인 인터뷰 기사문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업의 특성상 학습자들의 비중이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단계별 과제의 진행 과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켰고 수업의 목표와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2 인터뷰(1차 인터뷰/2차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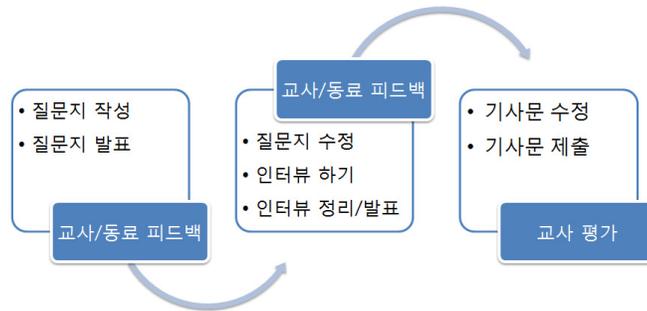
6주차부터 14주차까지는 ‘인터뷰’ 단계다. 이 단계는 크게 ‘1차 인터뷰’와 ‘2차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단 한 번의 인터뷰 활동으로 수업의 목표인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워 두 차례 인터뷰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다만 외국인 학습자임을 감안하여 1차 인터뷰 대상자는 한국어 선생님이나 한국어 학과 학생, 한국인 외국어 선생님처럼 학습자를 배려하면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한국 사람을 스스로 섭외하도록 하거나 소개해

4) 백지연의 피플 INSIDE 95화 광고인 이제석 편, tvN(2011년 4월 11일),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거의 유일한 정통 인터뷰 프로그램이라는 점과 국내에서 손꼽히는 인터뷰어가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습 자료로 선택하였다.

주었다. 그리고 2차 인터뷰 대상자는 그 동안 경험과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에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교내 교직원이나 자주 가는 식당 및 카페의 사장님 등등 학습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람들과 평소에 친분이 있어 보다 깊은 인터뷰가 가능한 사람들을 위주로 섭외하였다.<sup>5)</sup>

‘1차 인터뷰’와 ‘2차 인터뷰’는 <표 2>에서 제시한 ‘인터뷰 단계 모형’을 기저로 하여 교수요목을 설계하였다. 두 차례 인터뷰 모두 ‘인터뷰 질문지 작성 및 발표 - 교사/동료 피드백 - 질문지 수정, 인터뷰 후 발표 - 교사/동료 피드백 - 인터뷰 기사문 제출’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그림 1>처럼 학습자가 과제를 준비하면 교사 및 동료가 피드백을 주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중심적인 교수요목으로, 수업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제한하고 학습자 중심적인 수업을 설계하였다.

<그림 1> 인터뷰 진행 과정 및 수업 참여자의 역할



따라서 학습자들은 수업 이외의 시간에 인터뷰 과제를 수행하고 수업 시간에는 그 진행 과정을 2주에 걸쳐 발표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인터뷰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7주차나 12주차처럼 약간의 여유를 두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인터뷰 기사문(한글, Word), PT 자료, 녹음 자료,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은 필자의 이메일로 지정된 날짜까지 보내도록 하였으며 학습자들의 발표가 끝난 후, 쉬는 시간 및 수업 이후의 시간, 이메일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었다.

그러나 1차 인터뷰의 발표와 기사문 등의 과제물을 분석한 결과, 인터뷰 질문 구성, 기사문 쓰기 능력과 PT 발표 능력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10주차 수업을 통해서 인터뷰 기사문의 작성 방법, PT 자료 제작 방법, 발표 시의 유의사항을 재차 교수하였다. 또한 질문을 작성하고 배열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자들을 위하여 가상의 인물을

5) 본고는 학습자의 언어 숙달도와 인터뷰 사전 정보 습득을 고려하여 학습자와 관련이 깊은 인터뷰 대상자를 섭외하였으나 학습자의 언어 숙달도에 따라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터뷰 대상자를 섭외하여 심도 깊은 주제를 다루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가정하고 이에 맞는 질문을 작성하고 순서를 바로잡는 연습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2차 인터뷰 발표에서는 이전에 비해 기사문의 구성과 내용, PT 자료 제작의 완성도, 발표력 등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인터뷰 후

마지막 15주차 ‘인터뷰 후’ 단계에서는 최종 인터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다음의 기준에 중점을 두고 학습자들의 과제물을 평가하였다. 먼저, 인터뷰 단계 과정에 맞추어 제대로 수행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수업은 수업의 단계마다 정해진 과제와 진행 과정, 그리고 결과물을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질문을 구성하고 배열하였는지 보았다. 셋째, 인터뷰 내용이 들어 있는 녹음 파일을 듣고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지 평가하였다. 넷째, 인터뷰 보고서의 구성 원칙을 지켰는지 여부와 보고서에 인터뷰이의 생각이나 관심을 끌 만한 정보가 있는지도 고려하였다. 다섯째, PT를 알맞게 구성하고 간결하게 발표하였는지, 그때 청자들의 반응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모둠에서 각자의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도 고려하였다. 다음은 학습자의 실제 인터뷰 기사문이다.

<p><b>"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b></p> <p>우리 같은 유학생들이 타국에서 혼자서 생활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에 마주한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한테 도움을 주거나 격정을 해 주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런 우리를 격정에 주고 도움을 주는 국제 교류처 박은석 선생님을 만나 보았다.</p> <p>1. 선생님, 이렇게 바쁜시간에 우리한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 지는데 선생님 건강 괜찮으세요? -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감기 같은 것도 있고 이제 따뜻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p> <p>2. 가족들은요? - 애들도 잘 지내고 아내도 잘 지내고 있어요.</p> <p>3. 국제 교류처에 들어 온 지 얼마나 되었어요? - 배재대학교는 2006년도 9월에 왔고요 국제 교류처에 오자마자 한 년 정도 국제 교류처에 있다가 잠깐 다른 곳에 갔다가 2008년도에 다시 왔어요. 2008년도 10월 1일 여기 와서 지금 현재까지는 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것 같아요.</p> <p>4. 배재대학교에서 들어오기 전에 다른 데에서도 일 하신 적이 있으세요? -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여기 배재대학교 오기 전에 서울에서 직장생활 한 2년 정도 했고 미국 회사인데 ESR이라고 GIS 지리정보 시스템 만드는 회사에 있었는데 거기서 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배재대학교에 오게 됐어요.</p> <p>5. 그때 어떤 일을 하셨어요? - 그때는 본사가 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본사랑 가격이나 제품 정책에 대해서 미국과 협의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p> <p>6. 국제 교류처에서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 저는 대학교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같은 부류의 직장 생활과 생활하면 따분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오면 외국인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같이 살다 보면 좀 재미질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재미있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학교에 오고 싶었고 그 동안 배재대학교에서 사할 뻔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원하게 돼서 합격을 했어요.</p> <p>7. 그런데 국제 교류처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사무실에서 일 하셨죠? - 배재대학교 직원 같은 경우는 "어느 곳에서 일하세요."라고 발령이 나면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제 교류처에서 일을 하세요." 그럴 국제 교류처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여기 오기 전에는 교류처, 여러분분의 정착을 해주는 데 있죠? 그 사무실에서 일 했었어요. 거기서 1년 반 정도 일을 했었어요. 내년에도 아마 "다르네" 가서 일하세요." 그러면 다르네 가서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못 볼 수도 있죠.</p>	<p>8. 선생님 외국어인한 관련된 일을 하실 때 영어도 필요하잖아요. 선생님은 영어 잘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디에서 배우셨어요? - 영어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때 필수 과목으로 영어를 배우고, 저 같은 경우는 학부과정 캐나다에서 했었어요. 4년 정도 캐나다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그때 영어를 더 잘 하게 된 것 같아요.</p> <p>"영어 배울 때 캐나다에 유학 갔었어요. 그 때 영어 잘 했어요?" 캐나다 대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으려면 TOEFL성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TOEFL 공부를 했고, TOEFL 점수를 받아서 그 점수를 가지고 admission을 받으려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 문도 TOPIK시험도 보지만 본인이 말하는 거랑 시험 점수랑 약간 다르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TOEFL만을 위한 공부를 했고 거기 가서 이제 listening, 듣는 거랑 말하는 것 조금 더는 것 같아요.</p> <p>"거기 가서 어떻게 영어 배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거기 가서 영어 공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공이 경제학이어서 전공 공부하기가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언어 자체를 공부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험을 보려면 reading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책 맨날 보고 writing하고, 리포트 내고 뭐 이런 것. 영어를 따로 공부 할 시간 없었고 같은 반 친구들이랑 가끔 토론도 해야 되고 하니 그 때 친구들 있었어요. 친구들 통해서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대신 한국어로 한국말로 해야 되고 캐나다에 있을 때 영어로 했죠.</p> <p>9. 영어 쓰니까 힘들지 않으셨어요? -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해요. 매일 집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언어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완벽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 만큼 영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도 힘들어요.</p> <p>10. 우리도 영어 잘 해야 되는데, 선생님 책 읽는 것 보다 다른 방법이 있으세요? - 일단 영어는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도 퇴근하고 집에 가면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영어 공부를 하거든요. 매일 하루에 30분이 작은 것 같지만 1년이 모으고 2년이 모으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고 그래서 계속 꾸준히 조금씩 하면 한 1~2년 지나면 분명히 어려운 졸업할 때쯤 되면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질 거예요. 그래서 번역지 말고 하루에 30분이라도 하면, vocabulary가 됐던 writing이 됐던 reading이 됐던 어느 한 부분에서 이렇게 하루에 30분씩 계속 하세요.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p> <p>11. 배재대학교에서 동아리 있는데 캐나다 대학교에도 동아리 있었어요? - 동아리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재능 있는 학생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남자 친구, 여자 친구 사귀고, 술도 잘 마시고. 그러한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긴 한데 저는 그런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캐나다 갔을 때 목적이, 부자가 아니었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degree 학위를 따서 한국에 오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은 솔직히 쳐다보지도 않았고 학교, 도서관, 집 이렇게 세 군데 밖에 몰랐어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 도서관에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학비가 대개 바빴거든요.</p>
--	---

그렇게 해서 공부부 열심히 해야만 장학금이라도 받을 수 있었어요. 돈도 없었으니까, 또 노는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빨리 학점도 따서 졸업할 일 수 있었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도 잘 못 했어요.

\* 그럼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안 했어요?  
- 아르바이트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간이 뺏기고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에 자라리 공부를 하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만약에 100만원 번다면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에 공부를 하면 200만 원짜리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자라리 공부를 해서 장학금 받으면 그게 더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12. 요즘은 유학 가는 사람이 많은데 선생님 그 때 거기서 유학생 만났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 원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유럽에서도 오고 남미에서도 오고 아시아에서도 오고 그래서 그 때도 유학생들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학교 중국학생을 많았어요. 그 때 중국사람 어디 가도 많았던 것 같아요. 친한 중국 친구들도 있었어요.

13. 캐나다 대학교에 외국 학생을 위한 시설 어디예요? 배제대상 비교 하면 차이점은?  
- 선생님! 있었던 학교는 외국인인만을 위한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불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외국인이다. 아니다'라고 그렇게 구분 짓지 않아요. 그냥 우리 학교 왔으면 다 우리 학생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학력이 안 되면 물어오지 말라는 뜻이죠. 수강 신청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캐나다 학생과 똑같이 알아서 해야 돼요. 너무 힘들기도 한데 그거 못하면 학교 못 다니는 것처럼 도와주는 사람 없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배제대상이라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부러워요. 왜냐하면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여러분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학교생활할 일 수 있을까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여러분한테 자문을 해주니까, 제가 있었던 학교에는 그런 것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어요.

14. 그럼 배제대학교에 유학생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 유학생 같은 경우 한국 학생보다 더 말할 것 같아요. 우리 유학생만을 위한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유학생 온라인이라고. 거기 보면 볼, 여름, 가을, 겨울 시기별로 지역 대진출발지, 축제, 보충모드 축제, 공산인상축제, 백제문화제 이런 거 항상 공지가 올라오고 원하는 학생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지집 공헌, 클래식공헌 이런 공헌도 공짜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가끔 대원에서 죽구, 야구, 배구 경기하면 경기 표 공짜로 나눠주고 있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outer activity라고 하고, 학교 외 체육활동도 있었어요. 항상 홈페이지만 계속 주고 있었던 좋은 프로그램 계속적으로 아바 업데이트 될 거예요.

\*유학생들이랑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기억에 남지만 얼마 전에 외국인 유학생 음식 나누기 행사 했었어요. 근데 유학생들이 자기 모반의 나라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와서 먹어보고 했었는데 맛도 신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유학생들이 음식을 잘 할 지는 몰랐는데 맛도 있었고, 솔직히 스리랑카 음식, 혹은 멕시코 음식, 카차호산인 음식이 그런 거보지 않으면 못 먹어요. 우리나라

라 서울에 가도 스리랑카 음식 찾기 힘들어요. 물론 대전에 스리랑카 음식집 없는 것 같아요. 멕시코 음식도 지역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아니에요. 근대 이제 이런 행사를 통해서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을 비행기 타고 멀리 가지 않고도 먹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이지 않나 싶습니다.

15. 이런 프로그램 있어서 정말 좋네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말고 장학금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었어요?  
- 굉장히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유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주시경 장학제도 있는데 주시경 장학금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학비를 아예 사내 내내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생활비 20만원씩 주고, 생활비는 앞으로 인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학생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시경 장학금 말고도 일반 장학금을 장학금을 주는 데 성격에 따라 달라요. 4.0 이상인 학생들은 40% 감면 해주고, 3.0에서 3.9까지는 30% 해주고 이렇게 등급별로 성격 별로 감면을 해주고 그 다음에 토목 성적 좋은 학생들 토목 장학금을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는데 우수자비 유학생이라고 해서 성적 좋은 학생들 국가에서 선발을 해요. 한 달에 50만원씩, 1년에 주는 장학금이 있어요. 가끔 원하는 학생 국제 교류처 우리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 월에 33만원씩 주는 돈을 받아갈 수 있고, 유학생들이 공부 잘 하고 생활하기만 하고 열심히 찾아다니면 대부분 많은 학생들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16. 유학하러 온 학생들은 공부 문제뿐만 아니고 생활비 문제도 있고, 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외로움에 피하러온 친구도 많이 사귀어야 하는데 실제 보면 외국학생과 한국 학생들은 잘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 하세요?  
-그런데 이 문제는 선생님 해 줄 수 있는 게 정말 없어요. 질문 듣다가 손을 잡아가지고 '애를 좀 만나봐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한국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런데 선생님님이 이걸 만들었는데 학생들이 이걸 안 하면 물어오요. 그래서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여러분이 참여를 해야 돼요. 유학생이 친분이 있었어요. 학생들 다 손을 잡고 '한국 애들 잘 만나라!' 그렇게 해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한국에 왔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적극적으로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동아리 많거든요. 춤추는 동아리, 악기 치는 동아리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비는 동아리, 가서 뺨배 해주고 교육시설에 가서 봉사하고, 수학 동아리 등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길을 가다가 잘 생김 남자 있으면 물어보세요. 왕이 있는 남자가 미련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웃기 있게 내가 보세요. 한국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오지 않아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17. 우리 외국인들은 문제 생각 때마다 항상 선생님들 찾았었는데 선생님들 외국 학생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어요?  
- 지도 유학생활동도 했고 외국에서 외로운 적이 있었고 그래서 누구보다 여러분 잘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플땐처럼 생각하지 않고 친한 동생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면 더욱더 안타깝기도 하고 말한 게 감정이 실리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 때도 더 혼내요. 그런

데 선생님은 관심 없는 사람한테 별로 화를 내지 않아요. 관심 없으니까, 그 사람을 공부 잘 하긴 말곤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한테 항상 관심이 있었어요. 화를 내면 나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빨리 죽을 거 같아요. 정말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본 나쁘게 생각해왔던 것들이요. '저 사람은 왜 맨날 나쁜 화를 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만큼 나를 격려하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외국학생 중에서 제일 기억하는 학생이 있으세요?  
다 기억이 나는데,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같지 않아요. 다 unique해... 여기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잡아서 졸업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그냥 졸업 못하고 나간 학생도 있었어요. 좋은 기억 학생이 있고 안타깝게 기억나는 학생도 있었어요. 슬픈 일 있었어요. 유학생 한 명이 건강 안 좋았던 학생도 있고. 선생님 여기 있을 때 죽어간 학생도 있고. 여기 있으면서 별일 다 있었어요. 좋은 기억 슬픈 기억 하려면 여러 가지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좋았고 나뉘었던 건 없고. 한 사람마다 받는 느낌이 달라요. 다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꼽을 수 없어요.

18. 앞으로 배제대 들어올 외국학생 위해 어떤 노력 하고 있으세요?  
- 일단은 여러분이 오기 전에 배제대를 앉았는지 물어보는 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배제대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를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게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요 졸업장 다 나오고 처음 온 학생들이 우리 학교 적응 할 수 있도록 비디오프로그램이든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한국어 쉽게 배울 수 있는 TOPI특권 반, 대전 시 터어, 여러분이 졸업하고 취업해야 되니까 취업 범범도 참여 등등 여러분들이 입학해서 배제대를 알게 되고 공부하고 졸업할 때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주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19. 선생님 말씀듣고 나서 선생님 정말 바쁘신 분이예요. 프로그램 만들고 학생 문제까지 해결 해주시고 이렇게 바쁘면 가족을 위해 시간 중분히 내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필요일 금요일까지는 학교에서 일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대부분 동반대회사 버스 타고 나갈 때 주말에 수업이 있었어서 못 가니까 그래서 주말에 항상 그런 문화제, 백제문화제나 금산인상축제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족이랑 보낼 시간이 거의 없어요. 항상 그 나머지 시간,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랑 놀아주고 남는 시간이 가족들이랑 보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이랑 아가서 멀어지고, 가족도 중용하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 바빠서 서로 시간을 안 줘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 부인은 이해해주나요?  
- 이해 많이 해줘요. 여러분들 중에 없는데 가끔 학생들 중에 환자병 아니면 depression 우울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 선생님들이 집에 데려가서 밥 해 주고 같이 밥 먹고. 아내가 선생님 하는 일 잘 이해해주요. 선생님도 많이 가정 일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시간 많이 보내려고 노력해요.

20. 선생님 나중에 아들도 유학으로 보내고 싶으세요?  
- 애들이 가고 싶어 하면 보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유학이란 게 몇날에 유학에 가면 영어를 잘하고 영어 잘 하면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직장을 잡아서 부자가 되고 예쁜 사람과 결혼하고 있겠는데 그거보다 더 선생님들 만나면서 내면서 살게 배우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랑 캄보디아 사람 말라도 생각이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생각이 다르니까 세계 어디든지 가서 한국과 다른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을 경험할 줄 알고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많은 것을 갖다 경험하려고 내보내면 좋겠어요.

21.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이 만족하세요?  
- 가끔가다가 모든 것에 항상 만족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부자인 사람도 맨날 기쁨 수만 없는 것처럼 여기서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기쁨 평정하기, 슬플 때도 있고. 그런데 학교에서 여러분들 같이 호응하면서 어울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근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선생님 여기만 계속 있을 수 없고 나중에 또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프로그램 만들고, 기획하고, 실행하고 이런 것만 만족하고 있어요.

22. 그리고 선생님 이 직업 말고 또 다른 계획 있으세요? 미래 계획 좀 알려주세요.  
- 일단 죽을 때까지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사람이 또 어떻게 알아야.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대신에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사까지 했는데 박사하고 그 다음 또 다른 언어 같은 거, 악기 같은 거, 아니면 전공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려고요.

23. 마지막에 선생님 우리 유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으세요?  
- 정말 딱 한 가지. 공부하세요. 그게 굉장히 재미없는 말일수도 있지만 선생님도 학생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왔는지 잘 대어보셔야 마세요. 여기 왔을 때 공부하러 왔죠? 나라 친구, 지역 친구 만나러 온 거 아니죠?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공부하고 싶고 나중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장을 가지고 돌아가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 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항상 조심, 내가 왜 한국에 왔나, 어떤 마음으로 왔나 그것을 잊지 말고 졸업할 때까지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내내 박은석 선생님은 밝은 미소로 질문에 대답했다. 선생님은 아버지로서, 직원으로서 또는 우리한테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라는 좋은 마음으로 우리를 돕는 박은석 선생님의 도움을 앞으로 또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또 학교 직원으로서 더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두 번의 인터뷰 활동을 통하여 주도적으로 과업을 완성하였고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 혹은 대상자에 대해서 더 상세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으며 다른 학습자들의 인터뷰 과제를 통해서도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과정 중심적인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과제 수행 능력 등을 키울 수 있었고 각 인터뷰 단계에서 요구한 과업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조사하기, 인터뷰하기, 발표하기, 보고서 쓰기, 기사문 쓰기 등의 학업 기술과 사고력, 협동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과 같은 대학 수학 기초 능력 등을 배양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인터뷰 녹음 파일을 듣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를 전사하여 발표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구어와 문어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인터뷰라는 실제적인 의사소통 활동을 통해서 말하기·듣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녹음 내용을 반복해서 전사를 하는 활동을 통해서 듣기와 쓰기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다. 또한 모범 기사를 접하는 활동을 통해서 인터뷰와 기사문이라는 장르의 구조와 표현을, 발표 자료와 기사문 읽는 활동을 통해 실제적이고 풍부한 어휘와 표현을 학습할 수 있었으며 발표자와 한국인 인터뷰 대상자의 다양한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었다. 이렇듯 인터뷰를 활용한 교육은 모든 언어기능을 통합적, 상호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는 학습자들의 수업 평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업 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조사에서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본 수업을 통해서 인터뷰에 관련된 지식과 제작 과정을 이해하고 한국어의 화법, 한국어 회화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할 정도로 수업의 목표를 올바르게 이해한 학생도 있었다. 또한 한국어를 듣고 이해하고 정리하는 능력, 논리적인 사고방식, 한글 워드 방법, PT 조직 및 발표 등의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술 등을 습득하였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과 자신들과의 사고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지 등을 배웠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별과제를 통해서 조원들의 생각을 듣고 조율하는 방법을 학습했고 단어와 문법을 배우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반면에 소극적으로 조별 과제에 참여한 것과 대부분의 학생이 중국어권 학생이라 조원을 만나서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적었다는 모둠 수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 V.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인터뷰를 활용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의의와 인터뷰 단계 및 교수요목 그리고 실제를 제시하였다.

현재 각 대학에서는 대학의 교양 수업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학문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돕고 있다. 그러나 문법 수업, 학문적 글쓰기 수업, 발표나 토론 등의 제한적인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수업이 주로 개설되어 있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따른다. 그러나 인터뷰를 활용한 교육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고른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사고력 및 과제 수행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한국어의 구어와 문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인 및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다. 더불어 인터뷰 활동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훌륭한 수업 도구이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인터뷰 단계 모형과 수업 내용을 설계한 다음 학문 목적 한국어 교수요목을 제안하였다. 이 교수요목은 해당 주차별로 수업의 진행 내용과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인터뷰 전 - 인터뷰(1차/2차) - 인터뷰 후’ 3단계에 따라 수업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사고력 및 과제 수행 능력 등의 대학 수학 능력이 향상되었다. 또한 학습자들은 한국인 사고방식과 구어와 문어의 차이의 이해와 문법 및 어휘의 학습에도 큰 효과가 있었다고 설문조사에서 밝혔다. 본고는 인터뷰를 활용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첫 연구라는 점, 한국어 교육에 활용 가능한 인터뷰 단계 설정, 교수요목과 그 실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광지연·서미연. 2012. “인터뷰를 활용한 통합적 쓰기 교수 모형 - 초·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37차 춘계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326-340쪽
- 김경섭 외3. 2010. 『글쓰기와 스토리텔링』, 박이정
- 김용현. 2011a. “한국어교육학 연구의 현황과 분석 - 학술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7-2, 103-123.
- 김용현. 2011b. “한국어교육학 학술지의 현황과 분석” 『한국어 교육』 22-3, 49-75
- 김용현. 2012. “지역 문화 체험을 통한 기행문 쓰기 교육 방안 -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언어와 문화』 8-2, 47-76
- 김은정. 2012. “학문목적 글쓰기를 위한 대학글쓰기 교육 방안” 『교양교육연구』 6-3, 541-568
- 김정주. 2002. “인터뷰를 통한 국어 말하기·듣기 교수 - 학습 방법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창룡. 1994. 인터뷰, 『그 기술과 즐거움』 김영사
- 민현식. 2008.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8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19-39
- 박석준·김용현. 2012. “통계자료를 활용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외국어로 서의 한국어교육』 37, 139-165
- 박석준·김용현. 2013. “한국어교육학에서의 학문 목적 한국어 연구 동향 분석” 『언어와 문화』 9-1, 75-107
- 박성희. 2003. 『미디어 인터뷰』 나남출판
- 박재승. 2010. “의사소통 교육의 현황과 과제” 『새국어교육』 85, 119-139
- 오세정. 2012. “말하기·글쓰기의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교육 - 인터뷰를 활용한 대학 수업 모형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5, 353-374
- 이금희. 2012. “학문목적 한국어 글쓰기 교육에 필요한 교수요목과 교재 개발 방향” 『반교어문연구』 33, 119-224
- 이만훈. 2007. 『인터뷰의 모든 것』, 랜덤하우스 코리아
- 이재경. 2005. 『기사 작성의 기초』, 나무와 숲
- 이준호. 2009. “KAP 학습자를 위한 사고 기술 평가 방안 - 사고 기술과 평가 과제 선정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20-2, 175-201쪽

- 최성민. 2010. “인터뷰를 활용한 대학 글쓰기 교육” 『서강인문논총』 29, 411-443
- 최은지·정명숙. 2007. “외국인 유학생의 학문적 발표에 대한 인식 조사” 『이중언어학』, 35, 303-323
- 하병학. 2005.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의사소통과 작문교육”, 『한국작문학회 연구발표회 자료집』, 54-63
- H. Douglas Bro(2005), 이홍수 외 역,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fourth edition, Pearson Education Korea
- Metzler, Ken(1977), Creative Interviewing, Prentice Hall, Inc
- Stewart, Charles J. & William B. Csah, Jr.(1978), *Interviewing Principles and Practices*, WM. C. Brown Company Publishers

● 투고일: 2015. 11. 9.   ● 심사일: 2015. 11. 9.   ● 게재확정일: 2015. 11. 16.

## **A study on the method of Korean education for academic purposes using interview**

Kim, Yonghyun  
(Silla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method of Korean education for Academic Purposes using interview for KAP learners.

Education utilizing interview can cultivate more communication skills and help students improve the ability to think and perform better in academics. In addition, KAP learners can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written and spoken Korean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actively in class.

A KAP syllabus was suggested to achieve these designed models of interview stage. This syllabus stated clearly the content of the classes and the role of both teacher and learner. It is divided into three steps: pre-interview, interview and post interview, as suggested on the actual syllabus.

As a result, KAP learners have improved their communication skills, ability to think and perform better in academics. Furthermore, they said that Korean education for academic purposes using interview helps to comprehend the way Koreans think,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of written and spoken Korean, and to learn vocabulary and grammar.

This study is significant on that it is the first study of Korean education for Academic Purposes using interview for KAP learner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because it comes with an actual KAP syllabus.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education for Academic Purposes, interview, KAP syllabus